

“美 부통령, 이란과 2차 협상하러 파키스탄 출국 예정”

“美, 이란의 협상단 파견 메시지 기다려...최고지도자가 20일 밤 승인”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이란과의 중전 협상을 위해 21일(현지시간) 회담 장소인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출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미 온라인매체 약시오스가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두명의 소식통은 밴스 부통령이 21일 오전에 출발할 예정이라고 했으며, 다른 소식통은 밴스 부통령이 20일 밤늦게 떠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이 지난 11일 이란과 처음으로 협상했을 때 함께한 스티브 워너 부통령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도 이번 협상을 위해 이슬라마바드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과 이란은 휴전 시한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슬라마바드에서 다시 만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란이 아직 공식적으로 대표단을 보낸다고 발표하지 않으면서 협상 개최 여부와 정확한 일시 등은 불확실한 상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밴스 부통령이 파키스탄으로 가고 있으며 곧 도착한다고 말했지만, 이후 로이터통신은 밴스 부통령이 아직 미국에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밴스 부통령이 21일 워싱턴DC에서 이슬라마바드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두명의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또 밴스 부통령이 협상장에 나오면 첫 협상에서 이란 대표단을 이끈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도 참여할 것이라고 두명의 이란 당국자가 NYT에 전했다.

약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20일 하루 종일 이란으로부터 협상단을 이슬라마바드로 보내겠다는 메시지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고 한다.

한 소식통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가 미국의 이란 봉쇄 중단 없이는 대화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라고 협상단을 압박하는 가운데 이란 정부가 시간을 끌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 협상단은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결정을 기다렸는데 20일 밤에 협상 승인이 이뤄졌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연합뉴스



자카란다 꽃길을 걸으며

시인 정찬열의 포토에세이

한국의 봄꽃 소식에 끝날까 무렵, 이곳 LA는 자카란다꽃이 피기 시작한다. 보라, 캘리포니아 하늘에 몽게몽게 피어나는 저 보랏빛 꽃구름을 보라. 계절은 인간 잡사는 관심이 없다는 듯 무심히 우리 곁을 찾아오고 또 간다.

오랜만에 자카란다 가로수 길을 걷는다. 바람이 분다. 자카란다꽃 이파리가 나비처럼 날아오른다. 난분분 흩날리는 꽃잎 사이로 종소리가 들린다. 보랏빛 종소리가 푸른 하늘에 물결처럼 여울져간다. 자카란다는 신기하게도 껌꽃을 닮았다. 껌꽃이 떨어지면 고향 산천에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보라색 꽃잎이 길 위에 수북이 내려앉았다. 저렇게 쌓인 꽃잎을 보면 발 귀퉁이에 이불 호칭을 깔고 참깨를 털던 어머니가 생각난다. 수북수북 쌓여가는 껌을 보며 “하마 오지다잉 징하게 오지다야” 참말로 오지게 웃던 우리 엄니 웃음소리며, 흩어진 껌알을 쓸어담으며 “오-매으째야 쓰꺼나 깨 한 말이면 느그들 한 학기 납부금인디” 하시던 말씀 귓가에 맴돈다.

게으르게 깻단을 날라 오는 나에게 “죽으면

씩을 삭신 애께서 뭐한다냐”며 혀를 끝끝 차시던 어머니가 보인다. 죽으면 썩을 삭신, 이라는 말이 가슴을 후린다.

깊은 산타어나 강둑으로 이어진다. 강물에 백조가 노닌다. 오리 부부가 갓 태어난 새끼 오리 아홉 마리를 물고 간다. 저놈들은 흐르는 물 어디에 알을 낳아 숨겨두었을까. 어떻게 알을 품어 새끼를 데려왔을까. 신기하다.

천천히 걸어 우리 집 뒤뜰에 들어선다. 무화과 나무에 땀글땀글한 열매들이 춤추듯 매달려 있다. 감나무도 가지가 휘어지게 열매가 열렸다. 강간강간한 나무가 저놈들을 제대로 익혀낼까 싶지만, 걱정할 필요 없다.

“June drop”. 올해도 유월이면 바람이 가지를 흔들며 땀글한 열매들을 에누리 없이 속내내 버릴 것이다. 나무의 짐을 털어주는 것이다. 감당할 만큼만 매달아 두는 일. 능력을 넘어서는 욕심을 버리는 일. 자연은 말없이 인간을 가르친다.

어느새 달이 떴다. 보름달이다. 어디선가 개구리 울음소리 아스라이 들린다. 별처럼 반짝이는 저 소리. 다시 귀 기울여보니 보름달 살 빠지는 소리라. 아직은 다리심이 쟁쟁하여, 초승달 살 붙는 소리와 구분할 수 있으니, 다행이다. 그 또한 얼마나 오래 갈까 당신도 나도, 아무도 모를 일이지만.



20일(현지시간) 교황 레오 14세가 앙골라 루안다의 파티마 성모 성당에서 주교, 사제, 봉헌된 남녀 수도자, 사목 활동가들과 만나고 있다. /EPA=연합뉴스

다카이치,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 日정부 “개인 입장에서 봉납”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1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도쿄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봉납했다.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시작된 야스쿠니 신사 춘계 예대제(例大祭·제사)를 맞아 ‘내각총리 대신 다카이치 사나에’ 명의로 ‘마사카키’라고 불리는 공물을 봉납했다.

이번 봄 예대제는 우익 성향인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후 처음 맞는 야스쿠니 신사의 대형 참배 기간이어서 참배 여부가 주목받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봄과 가을 예대제, 일본 패전일인 8월15일에 정기적으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해 온 정치인이다.

그러나 그는 이번 예대제 기간 한국과 중국의 반발 등 외교 문제를 피해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나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등의 사례를 따라서 공물만 봉납하고 참배는 보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참배를 포기하고 공물만 봉납한 이유에 대해 “개인 입장에서 마사카키를 봉납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입장을 밝힐 사안은 아니라고 인식한다”고 답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직전 자민당 총재단 말고 있던 작년 10월에도 참배는 하지 않고 ‘다마구시’로 불리는 공물 대금을 사비로 봉납했다.

이날 각료 중 우에노 겐이치로 후생노동상, 아카마 지로 방재담당상, 기우치 미노루 경제재정담당상도 공물을 봉납했다.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의 후지타 후미타케 공동대표, 나카쓰카 히로시 간사장 등은 참배했다. /연합뉴스

교황, 앙골라 다이아 광산촌 야외 미사

앙골라를 순방 중인 레오 14세 교황이 다이아몬드 매장량이 풍부하지만 빈곤에 시달리는 사우리모 지역을 방문해 자원 개발을 둘러싼 불평등과 권력층의 ‘착취’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20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교황은 이날 앙골라 북동부 루다술주 주도 사우리모에서 열린 대규모 야외 미사에서 포르투갈어로 “오늘날 우리는 많은 사람의 희망이 폭력에 의해 좌절되고, 강자들에 의해 착취되며, 부유한 이들에 의해 침해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불의가 마음을 타락시킬 때 모든 이의 양식은 소수의 소유물이 된다”며 자원 부족임에도 빈곤이 지속되는 앙골라의 현실을 지적했다.

이날 미사에는 약 4만명이 참석했다고 당국은 전했다.

사우리모는 앙골라 전체 다이아몬드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카토카 광산 인근에 있는 도시다. 광산 개발에 따른 환경 훼손과 지역 주민간

제이주 문제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앙골라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주요 산유국이자 다이아몬드 생산국으로 꼽히는 자원 부국이다. 하지만 1975년 독립 이후 발발해 2002년까지 이어진 내전의 여파로 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약 3천600만 인구 중 상당수가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

교황은 앙골라 방문 첫날인 지난 18일에도 주앙 로렌수 대통령 등 정부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천연자원에 대한 무분별한 착취가 사회적·환경적 재앙을 초래하고 있다”며 책임 있는 정책을 촉구한 바 있다.

교황은 앞서 알제리와 카메룬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권력층과 다국적 기업에 의한 자원 착취 문제를 비판했다.

교황은 지난 13일부터 아프리카 순방을 시작해 알제리, 카메룬, 앙골라를 방문했으며, 21일 마지막 방문지인 적도기니로 이동해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美·필리핀, 대규모 연합훈련

이란에서 40일 이상 전쟁을 수행 중인 미군이 사실상 중국을 겨냥, 필리핀에서 필리핀군 등과 대규모 연례 연합훈련에 돌입했다.

21일(현지시간) 필리핀군 등에 따르면 미군과 필리핀군은 전날 미군 약 1만 명을 포함해 총 1만7천여명의 병력이 참가하는 연례 연합훈련

“발리카탄”을 시작했다.

내달 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미국·필리핀과 그간 참여해왔던 호주 외에도 일본·캐나다·프랑스·뉴질랜드가 처음으로 적극 참여한다.

참가국들은 중국과 필리핀이 영유권 문제를 놓고 다투는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인근의 필리핀 지역 등지에서 모의 전투와 실사격 훈련 등을 벌인다. /연합뉴스



묘 이강 · 개장

가족묘 조성 / 개장 / 묘지이강 / 유골함 / 자연장

맞춤형 묘지이강 전문 ☎문의) 062-464-3466